

“골칫덩이 빈집부지에 생활형 시설 설치해야”

빈집 특례법 활용방안 포럼 광주 7000호 30년 넘게 방치 체계적 조사 뒤 도시재생 연계

광주·전남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철거, 재건축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된 가운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도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빈집특례법’ 시행에 따른 활용방안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광주 전지역에 분포돼 있는 ‘빈집’에 대한 각계 및 지역민의 관심을 환기시켜 광주 빈집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빈집은 지난 2000년 1만3741호(4.24%)에서 2015년 2만7000호(5.5%)로 2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빈집은 7000호에 달한다. 전남은 지난 2010년 5만7000호에서 10만3000호로 83.70%가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을 실시한 가운데 광주시와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도시공사가 같은 날 오후 지역 대책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이들 빈집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시는 연차별 세부전략과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부는 통계, 법령, 지침을 만들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 이세원 책임연구원은 ‘빈집실태 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서 “에너지 데이터와 상하수도 사용량, 건

축물대장과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기준과 차별화된 빈집조사방법론을 도입할 것”이라며 “하수를 줄인 정확한 빈집조사 결과를 통해 대규모 철거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남 부연구위원은 ‘빈집 대응 정책과 광주시의 대응방안’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광역

시-구도 행정협력 연계, 빈집 정비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사업 협력 주제 연계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영국 지오시티 대표가 좌장을 맡고, 강권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 민문식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 이동석 셰어하우스 대표, 문창용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도시재생팀장 등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명절 결식우려 아동 9670명 지원대책 추진

광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굶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9670명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식품 및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864곳을 설 연휴 아동급식업소로 지정했다.

또 5개 자치구에서는 14일까지 관내 아동급식업소 및 대체식품에 대한 위생상태, 배달계획, 영업여부 등 아동급식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명절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아동급식 지정업소 장소와 영업일을 안내하고 대체식품을 필요로 하는 가정

은 14일까지 배달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15일부터 18일까지 비상근무 상황반(시 및 5개 자치구, 6개 반 16명)을 편성·운영한다. 상황반은 아동급식상황을 파악하고 지정업소를 소개하는 한편 대체식품 배달 등 역할을 한다.

김예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설 연휴기간 자치구별 급식제공 기관 현황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할 예정이다”며 “결식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3일까지 주민 평가위원 공모 오늘부터 선착순 모집

광주시는 11일 “오는 23일까지 광주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평가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광주도시공사 경영평가단에 참여해 경영평가 지표 중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신청서류를 작성해 23일까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예산정책관실(062-613-2441)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시립사직도서관은 3월부터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고 일상을 풍요롭게 해 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명대에 맞춰 운영한다.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엄마책 아기공 책놀이(0~18개월) ▲베이비씨인(12~30개월) ▲유아가베(30~36개월) ▲꼬마블러박사(37~60개월) ▲키즈로봇교실(초등1학년)이 개설돼 참여자를 모집한다.

유치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동동 책놀이 ▲어린이 고전 인문학 강좌 ▲주말 미니극장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기관리와 독서법 ▲명화로 보는 인문학 ▲인문 시 짓기 ▲퍼블릭포럼 디베이트 ▲시민한문교실이 운영되며, 연중 ‘테마가 있는 도서관’도 열린다. 참가자는 12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모든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사직도서관(062-613-7772, 7774)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LED 조명 교체 아파트 최대 300만원 지원

시, 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위에 설치된 일반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해 에너지절감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014년부터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99개 단지 아파트에 총 1억3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올해도 11월 30일까지 LED등으로 교체한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절감 실적, 지역생산물품 사용실적, 교체공사비 등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LED등으로 교체하면 에너지가 절약

될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두배 이상 밝게 개선돼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ED등을 설치한 아파트는 ‘그린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아파트 가치도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경호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기존 일반조명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해 에너지 절감을 물론이고, 지하주차장 내 밝은 조명효과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D등으로 교체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아파트단지는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에너지산업과(062-613-379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발코니 태양광 설치 가구 많을수록 추가 지원

1세대 자부담 21만원

광주시는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발코니 빛고을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된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 사업은 광주시 미니 태양광발전설비의 별칭으로 공동주택 발코니의 난간에 설치해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는 인센티브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인센티브제는 참여율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개 등에서 5세대 이상 설치하면 세대당 3만원, 1개 단지에서 10세대 이상 설치하면 세대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발코니 발전소가 여름에는 하루

최대 6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지난해의 경우 하루평균 가동시간이 3.5시간에 달해 전기료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발코니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3000~1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발전소 사업 참여 세대는 총 설치비용 73만원 가운데 21만원만 부담하면 태양광발전설비(250~300W)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52만원은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AS는 5년간 무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4개 참여(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13일부터 설치 희망 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은 광주시 에너지산업과(062-613-3781~3) 또는 참여(시공)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통시장서 명절 장보기 광주소방학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 시민경제 살리기에 참여하기 위해 광산구 송정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장보기에는 소방학교 전 교직원들이 참여해 사전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고 송정시장에서 식사를 했다. 광주소방학교는 연중 실시하는 교육 기간 교육공로자와 성적 우수자 등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지급(매년 700여 만원 상당)하고 있다. <광주소방학교 제공>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지리산은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